

■ 추석 성수품 구매 적기는

시금치 3일전·쇠고기 5일전 과일은 추석 임박해서 준비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추이·작황 등 분석

추석 성수품을 신속 구매하려면 채소류는 3~5일전, 과일류는 추석에 최대한 임박해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윤장배)는 추석 전 15일간 성수품 가격추이(최근 3년)와 올해 작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구매적기를 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쌀은 추석 3일 전, 과일류는 올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만큼 출하물량이 늘어나는 추석 직전에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의 경우 배추와 무는 사용 용도를 고려해서 5일전에, 시금치는 3일전에 사는 것이 더 싸다. 수산물은 가격변화가 거의 없어 구입시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쇠고기는 추석이 임박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냉장보관용의 경우 추석 5일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 전국 12개 도시 주요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

장을 이용할 경우 대형유통업체보다 26%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알뜰 구매장소로는 송편용품(쌀·깨)과 과일(사과·배)은 재래시장, 대추·밤·곶감은 직거래 장터, 배추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추석을 오는 14일 올해 차례상 비용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17일에도 aT 농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co.kr)를 통해 성수품 가격추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어느 시계가 더 나올까?

회로 12일까지 열린다.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0 서울기프트쇼'에서 한 시계업체 직원이 전시 중인 자사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 행사는 선물용품박람회로 12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보혜 아이디어 공모전

호남지역 대학생 대상

보혜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 주제는 ▲Social Media를 활용한 기업 PR전략 ▲주류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보혜 매실농원의 관광 상품화 전략이다. 참가회비는 오는 10월 29일까지 보혜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http://idea.bohae.co.kr)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주제 관련 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등과 금상 2등에게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과 일본 산업시찰의 기회가 제공된다. 은상 3등과 동상 4등 상금은 각각 50만원과 30만원. 수상자들에게 채용우대 특전도 제공된다. 문의 062-370-6270~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 10명중 8명 “지역자본이 光銀 인수해야”

75% “지역연구 우대 입찰을”...39%는 “출자자 모집 참여”

농협, 중소기업에 5000억 지원

광주은행 ‘한가위 애향 큰잔치’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자사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가위 애향(愛鄉) 큰잔치’ 사은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서울·경인지역 S-Oil 주유소에서 기쁨을 느낄 때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준다.
10일부터 추석 전날인 21일까지는 전국 카드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실시하고, 롯데·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 광주은행 카드로 15만원 이상 결제하면 생활용품, 30만원 이상 상품 구입시에는 종합선물세트를 사은행으로 제공한다. 광주은행 카드사업부 오선탁 부장은 “광주카드 이용고객들이 차원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

농협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 등으로 총 1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만기연장은 1조원, 신규대출은 5000억원이다. 농협은 또 20~21일 이틀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현금입출금과 계좌이체,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광주시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우리은행 계열사인 광주은행을 지역자본이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공공데이터센터(KPDC)가 최근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다. 광주은행은 현재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다.

응답자의 74.8%는 구체적인 매각 방식으로 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가산점 등을 부여해 지역 연고를 우대하는 입찰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매수 가격만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8.9%에 그쳤다.
조사 대상자의 76.7%는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광주시민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상권인들의 주장대로

지역자본에 의해 인수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이들 가운데 39.2%는 광주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출자자를 모집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31.1%였고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8.2%였다.
한편, 광주시민의 은행 이용 실태

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은 농협이 41.4%로 가장 많았고 광주은행 이용자는 37.5%였다. 은행선택 이유로는 ‘근접성’(54%)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금융통합거래·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30.1%였다.
이번 조사는 공공데이터센터가 광주시민 5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17일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2%p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9. 10(금) ~ 9. 20(월)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담아 귀하께 소중한 그분께는 특별한 선물이 어울립니다

한가위 정나눔

현대백화점 HYUNDAI

중간 합산(부문) 사은행사 「현대신한카드」 구매고객께 현대상품권을 드립니다

증정기간 : 9/10(금)~9/12(일), 3일간 증정장소 : 8층 사은행 증정 데스크

20/ 40만원이상 구매시 1/ 2만원 현대상품권 증정

부문 1 2층+3층+4층+5층 부문 2 1층+6층+7층+8층

※ 부문1 + 부문2 합산 불가합니다

- 당일 본인 현대신한카드 구매영수증에 한하며, 상기 예시된 부문 합산가능합니다.
- 다른행사와 중복하여 증정하지 않으며, 한 개의 영수증을 분할 증정하지 않습니다.
- 가전은 구매금액의 50% 인정합니다.(단, 소형가전은 100% 인정)

현대자동차 신형 아반떼를 드립니다

응모기간 : 8/27(금)~9/21(화) 응모대상 : 1층 정문 안내데스크
응모대상 : 기간 중 방문고객 추첨일시 : 9/21(화), 오후 6시

광주점 1대

- ※ 경쟁수량은 전점기준 12대이며 (광주점 1대), 만 20세 이상 응모 가능합니다.
- ※ 제세공과금(22%) 및 차량 등록, 재반 비용은 당첨고객 부담입니다.
- ※ 경쟁차량은 신형아반떼 M16 GDI Deluxe A/T 모델.
- ※ 중복 당첨시 최초 권리만 인정합니다.
- ※ 당첨자는 개별연락 및 현대백화점 홈페이지(www.ehyundai.com)에 안내
- ※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